

7000억원 예산시대 열다

남원시, 국비 1130억 확보... 지난해보다 220억 증가

남원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13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0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2019년 남원시 살림살이 7,000억 시대를 여는 데 큰 힘이 되는 바탕이다.

남원시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성장 동력산업의 순조롭게 추진하는 등 민선 7기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월라정수장 개량(268억)과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250억) 예산은 남원시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남원시가 중장기 지역경제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화장품산업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확보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으며, 지식산업센터 예산확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및 남원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등이 큰 도움을 주었다.

남원시의 막바지 예산활동도 뒷심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은 수영장 건립(국비 30억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250억원), 합파우 옛다솜 이야기 원조성 사업(174억) 예산 등을 확보해 시민들의 경제상권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각 부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재부 심의, 국회 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정

치권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라는 평이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를 도래하자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을 비롯해, 예결위 소속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을 방문, 예산 확보 당위성을 호소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박희승 위원장과 국회사무처와 기재부에 근무하는 남원 출신 공무원, 지인, 보좌관, 비서관 등 지역과 당을 초월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이환주 시장은 느낀점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혼자 힘의 힘이 아닌, 모두가 들고 합심하였을 때 이루지는 성과라며, 고향 남원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올해 특교세 35억7900만원

임실군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역대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정비 외 2건에 1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임실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5억7900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특교세를 쟁겼다. 민선 6기 초기인 지난 2015년 20억 4000만원에 불과했던 특교세는 2016년 33억9000만원과 2017년 32억1000만원으로 30억원대로 올라섰고, 올해는 35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이들 예산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8억5000만원),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4억원), 다목적 체육관(3억원) 등 굵직한 현안 및 시책사업의 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임실군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심민 임실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용호 의원의 유기적으로 협력한 큰 몫을 해냈다는 평이다. 심 민 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 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적 체육관(3억원) 등 굵직한 현안 및 시책사업의 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임실군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심민 임실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용호 의원의 유기적으로 협력한 큰 몫을 해냈다는 평이다. 심 민 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 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도로명 주소 숨은 3원칙 홍보

순창군이 내년에도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군은 304곳의 도로명주소 마을안내판 교체와 찾아가는 홍보캠페인 등 도로명주소 기본원리, 검색방법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지번주소와 시 군 구 읍 읍면까지는 동일하다. 다만 동 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에

는 세가지 원칙이 숨겨져 있다. 첫 번째로 도로 폭에 따라 나뉘는데 '대로'는 폭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로'는 폭 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이고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도로 시작점에서 도로는 서→동, 남→북으로 진행되고 20m 간격으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

은 짝수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것이 '기초번호'다. 마지막으로 도로 시작점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건물번호x10m'이라는 것이다. 도로명부여는 지역명칭, 명산, 인물 등 지역 상징성을 반영해 부여한 것으로, 광역도로망은 도간 연결도로로 담순로(담양-순창), 추령로(담양-순창-정읍) 등 9개의 도로가 있고, 전라북도 광역도로망은 시군 연결도로로 충효로(순창-임실-장수), 모악로(순창-임실-완주-전주)등 11개 도로망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 민 군수, 기초생활거점사업 선제적 대응 나서

심 민 임실군수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신규공모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민과 협심하는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민 군수를 비롯한,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신명·지사면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심 민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신청면과 지사면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도출된 사안들을 검토해 달라”며 “공모사업이 지역 성장 동력의 필수요소인 만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발굴에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읍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

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하여 임실읍, 청용면, 강진면, 삼계면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수면과 관촌면 기초거점생활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농촌의 중심지인 생활편익과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배후마을을 연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스포츠마케팅어워드에서 지자체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포츠산업·마케팅 가치 제고·성장

순창군, 마케팅어워드 지자체부문 본상 수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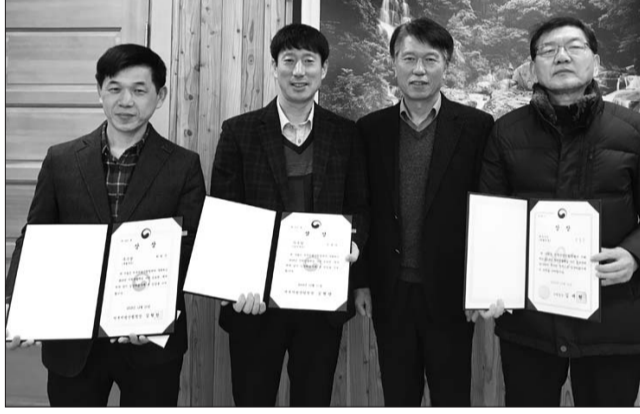
순창군이 제4회 스포츠마케팅어워드 2018(SPORT MARKETING AWARDS 2018)에서 지자체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포츠마케팅어워드’는 (사)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투터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2014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개최됐다.

올해는 스포츠 선수, 스포츠단체 기업 브랜드, 지방자치단체 등 총 62개의 개인 및 단체가 부문별 수상후보 등록에 참여했으며, 지난 5일 10여명의 스포츠 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은 내년에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과 전국대회 유치 확대 등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스포츠마케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경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리산둘레길의 아름다움을 홍보한 사진 시상식을 가졌다.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사진 시상식

서부지방산림청은 11일 지리산둘레길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경기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18년 지리산둘레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지리산둘레길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둘레길의 다양한 특징이 담긴 사진 또는 가족과 친구끼리 둘레길을 걸었던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총 213점을 출품하였으며, 예비심사

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입선작 총 28점을 선정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은 둘레길이 더욱 즐겁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3년 연속

지역건설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3년 연속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사 수주 및 자재구매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로부터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연속 3년째로 2016년 최우수 기관에 이어 지난 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에 노력해 왔으며,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역 업체를 적극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민 군수는 “지역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사정도 좋아지고, 침체된 지역경기 전반에 걸쳐 활기가 되살아 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보호에 앞장서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연말연시 안전띠 미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8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11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8년 1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남원시 전 지역에 대해 최근 사망사고 발생장소 및 사고 다발지역을 순회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으로 이동식 단속을 하는 등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동호인들이 집중운집하는 자전거 음주운전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단속하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측정되면 범칙금 3만원을,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편,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단속을 실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